부산지역 중, 고등학교 인권 실태와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조사

가 – 조사의 개요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권리 향상,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한 '부산지역 중, 고등학교 인권실태조사'이다.

2. 분석도구 : PASW Statistics 18

3. 분석목적

1. 중, 고등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파악
2. 학생 권리 향상,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정책 제시

4. 조사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부산지역 중, 고등학교 학생
조사기간	2013년 8월 27일~ 9월 11일
응답자 수	7399명
표본추출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방식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기입 후 온라인으로 전송)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 1.14%

5. 조사 내용

1) 조사대상의 기초 인적 사항 조사
– 학제, 학년, 거주 지역,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

2)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조사

- 체벌, 두발 규제, 강제 보충, 휴대폰 사용 제한, 소지품 검사, 학생 회장 출마 제한, 복장 규제의 심각성, 문제의식에 대한 인식

- 그 이외 본인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기술식의 설문 조사

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중인 학교의 인권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7,520명이었으나 초등학생, 탈학교 청소년, 대학생 등을 제외하고 난 뒤 유효응답자 수는 7,399명이었다. 유효응답자 7,339명 중 5,734명(77.5%)이 중학생이고, 1,665명(22.5%)이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항목	응답수	백분율
중학생	5,734	77.5%
고등학생	1,665	22,5%
합계	7,339	100%

중학생의 경우 1학년 37.91%, 2학년 44.96%, 3학년 17.13%로 비교적 고르게 참여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이 79.58% 참여한 데 비해 3학년은 3.18%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중, 고등학생 모두 비교적 1,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입시의 압박으로 인해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생		
	응답수	백분율
1학년	2,174	37.9%
2학년	2,578	45.0%
3학년	982	17.1%
합계	5,734	100.0%

고등학생		
	응답수	백분율
1학년	1,325	79.6%
2학년	287	17.2%
3학년	53	3.2%
합계	1,655	100.0%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6,194명 중 4,729(76.3%)명은 중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했고, 1,465명(23.7%)은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하였다. 응답한 학교 중 중학교는 173개교, 고등학교는 129개교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거제여자중학교	144	삼락중학교	16	사대부고	31	양문고등학교	6
인지중학교	105	신도고등학교	16	예문여자고등학교	31	연제고등학교	6
성도고등학교	99	신정고등학교	16	온천중학교	31	지산고등학교	6
부산여자중학교	97	건국중학교	15	석포여자중학교	30	충렬고등학교	6
토현중학교	94	경원고등학교	15	신덕중학교	30	해운대고등학교	6
양동여자중학교	93	대연고등학교	15	신정중학교	30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5
연일중학교	86	부경고등학교	15	향도중학교	30	금곡중학교	5
대신여자중학교	79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15	대신중학교	29	내성고등학교	5
동현중학교	75	용인고등학교	15	반안중학교	29	동래원예고등학교	5
남일중학교	74	주례중학교	15	반여중학교	29	만덕고등학교	5
기장중학교	73	강서고등학교	14	부산공업고등학교	29	부산동고등학교	5
부산진여자중학교	73	광안중학교	14	연천중학교	29	부산동여자고등학교	5
여명중학교	73	금성고등학교	14	주례여자중학교	29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5
혜화여자중학교	67	남도여자중학교	14	동삼중학교	28	사상고등학교	5
학산여자중학교	65	덕천여자중학교	14	가람중학교	27	성모여자고등학교	5
해강중학교	65	반송여자중학교	14	경남여자중학교	27	영도여자고등학교	5
동래여자중학교	64	부산남중학교	14	경남중학교	27	중앙고등학교	5
양문중학교	63	삼성중학교	14	동해중학교	27	대덕여자고등학교	4
개림중학교	62	양정고등학교	14	만덕중학교	27	부산경영고등학교	4
대연중학교	62	초장중학교	14	경남공업고등학교	26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4
내성중학교	61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13	남산고등학교	26	부산남고등학교	4
이사벨중학교	61	덕천중학교	13	다선중학교	26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4
한바다중학교	61	동백중학교	13	백양고등학교	26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4
상당중학교	58	문화여자고등학교	13	분포중학교	26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4
동의중학교	57	브니엘여자고등학교	13	용호중학교	26	가락중학교	3
동인고등학교	54	서면중학교	13	해강고등학교	26	구덕고등학교	3

문현여자중학교	54	영남중학교	13	화신중학교	26	구서여자중학교	3
중앙여자중학교	54	오륙도중학교	13	대연정보고등학교	25	금정여자고등학교	3
덕명여자중학교	53	장안중학교	13	동아공업고등학교	25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3
덕문여자고등학교	52	중앙여자고등학교	13	사하중학교	25	부경보건고등학교	3
부곡여자중학교	52	경남고등학교	12	양덕여자중학교	25	부산경호고등학교	3
개성중학교	51	금정중학교	12	엄궁중학교	25	부산서여자고등학교	3
신도중학교	51	반송중학교	12	영도중학교	25	부일외국어고등학교	3
유락여자중학교	51	부산중학교	12	화명고등학교	25	신선중학교	3
대청중학교	50	부산마케팅고등학교	12	개금여자고등학교	24	주례여자고등학교	3
동양중학교	49	부산여자고등학교	12	동신중학교	24	컴퓨터과학고등학교	3
해운대여자중학교	49	부산조리고등학교	12	부산디자인고등학교	25	하단중학교	3
남천중학교	48	부산진고등학교	12	재송중학교	24	경일고등학교	2
해언중학교	47	혜화여자고등학교	12	낙동고등학교	23	경호고등학교	2
감천중학교	46	동아고등학교	11	남산중학교	23	골프고등학교	2
대등중학교	45	부산중학교	11	대저고등학교	23	금명여자고등학교	2
부흥중학교	45	삼정고등학교	11	덕포여자중학교	23	금정고등학교	2
성종중학교	45	성지고등학교	11	동평여자중학교	23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2
안락중학교	45	이사벨고등학교	11	장림여자중학교	23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2
초읍중학교	45	학산여자고등학교	11	장평중학교	23	덕천남자중학교	2
장산중학교	44	동래고등학교	10	경남전자고등학교	22	동평남자중학교	2
동래중학교	43	모동중학교	10	광무여자중학교	22	문현여자고등학교	2
명진중학교	43	부산고등학교	10	다대중학교	22	부산국제중학교	2
해운대중학교	43	경혜여자고등학교	9	동성고등학교	22	브니엘예술고등학교	2
선화여자중학교	40	금사중학교	9	신곡중학교	22	사직여자고등학교	2
가야여자중학교	39	배정고등학교	9	대천중학교	21	삼성여자고등학교	2
당리중학교	39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9	동주여자고등학교	21	세정상업고등학교	2
구포중학교	38	영선중학교	9	부산동여자중학교	21	센텀고등학교	2
동주여자중학교	38	해동고등학교	9	부산예술중학교	21	에너지과학고등학교	2
명호중학교	38	감만중학교	8	용수중학교	21	진여자중학교	2
송도중학교	38	금곡고등학교	8	학장중학교	21	개금고등학교	1
동평중학교	37	동여자고등학교	8	화명중학교	21	개성고등학교	1
사직중학교	37	부산정보고등학교	8	구남중학교	20	경일중학교	1
신라중학교	37	성심보건고등학교	8	금명중학교	20	국제영화고등학교	1
초연중학교	37	연산중학교	8	덕원중학교	20	금정여자중학교	1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36	하남중학교	8	장전중학교	20	낙동중학교	1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6	해운대여자고등학교	8	가야고등학교	19	다대고등학교	1
수영중학교	36	대천리중학교	7	부산예술고등학교	19	대저중학교	1
해동중학교	36	데레사여자고등학교	7	부산진여자고등학교	19	동래여자고등학교	1
재송여자중학교	35	부산보건고등학교	7	운송중학교	19	부산과학고등학교	1
충렬중학교	35	부산서중학교	7	태종대중학교	19	부산관광고등학교	1
거성중학교	34	브니엘고등학교	7	금성중학교	18	부산해사고등학교	1
동수영중학교	33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7	대등고등학교	18	예원여자고등학교	1
두송중학교	33	경남여자고등학교	6	동의공업고등학교	18	일과학고등학교	1
센텀중학교	33	광명고등학교	6	동주중학교	18	자동차고등학교	1
용문중학교	33	남성여자고등학교	6	사직고등학교	18	제물포중학교	1
해운대공업고등학교	33	반여고등학교	6	주감중학교	18	해운대관광고등학교	17
동아중학교	32	백양중학교	6	다송중학교	17	금양중학교	16
사직여자중학교	32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6	동천고등학교	17	남일고등학교	16

부곡중학교	31	분포고등학교	6	모라중학교	17	대명여자고등학교	16
연제중학교	17	부산진중학교	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인권침해'의 범위를 체벌, 두발규제, 강제 보충, 휴대폰 압수/사용제한, 소지품 검사, 학생회장 출마 제한, 외투 색과 같은 복장에 대한 규제로 두고,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보통이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인권침해가 존재하는지(또는 없는지), 그리고 응답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어느정도인지 조사했다.

"본인의 학교는 각 항목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없다"를 제외한 응답 수	전체 응답 수	백분율
체벌	6,711	7,399	91.5%
두발 규제	7,335	7,399	99.1%
강제 보충/야간학습	4,648	7,399	62.8%
휴대폰 사용 제한	7,163	7,399	96.8%
소지품 검사	5,554	7,399	75.0%
학생회장 출마 제한	5,086	7,399	68.7%
복장 규제	6,566	7,399	88.7%

총 응답자 7339명 중 '본인의 학교에서 어느만큼 심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있다' '보통이다' '조금 심하다' '매우 심하다'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체벌 91.5%(6,711명), 두발 규제 99.1% (7,335명), 강제 보충/야간학습 62.8% (4,648명), 휴대폰 사용 제한 96.8% (7,163명), 소지품 검사 75.0% (5,554명), 학생회장 출마 제한 68.7% (5,086명), 복장규제 88.6% (6,565명) 이었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체벌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628	8.5%
	‘조금 있다’	2,001	27.0%
	‘보통이다.’	2,088	28.5%
	‘조금 심하다’	1,467	19.9%
	‘매우 심하다’	1,215	16.6%
합계		7,399	100.0%

체벌의 경우 628명(8.5%)을 제외하고 모두 체벌이 있다고 대답하여 대다수(91.5%)가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두발 규제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64	0.9%
	‘조금 있다’	321	4.3%
	‘보통이다.’	819	11.1%
	‘조금 심하다’	2,001	27.0%
	‘매우 심하다’	4,194	56.7%
합계		7,399	100.0%

두발 규제의 경우 ‘전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겨우 64명(0.9%)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두발 규제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전혀 없다’와 ‘보통이다’의 응답 수는 385(5.2%)인데 반해, ‘조금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의 응답 수는 6,195(83.7%)로 나타나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강제 보충, 야간 학습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214	12.9%
	‘조금 있다’	142	8.5%
	‘보통이다.’	222	13.3%
	‘조금 심하다’	312	18.8%
	‘매우 심하다’	775	46.5%
합계		1,665	100.0%

강제 보충, 강제 야간 자율학습은 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 고교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를 따로 분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혀 없다’의 응답 수는 214(12.9%)로, 대부분이 강제 보충, 야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금 심하다’ ‘매우 심하다’의 응답수도 1,087(65.3%)으로 꽤 높아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강제 보충, 야간 학습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2,537	44.2%
	‘조금 있다’	1,116	19.5%
	‘보통이다.’	858	15.0%
	‘조금 심하다’	494	8.6%
	‘매우 심하다’	729	12.7%
합계		5,734	100.0%

대부분 강제 보충, 야간 학습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강제 보충, 야간학습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없다’를 제외한 응답수가 3,197(55.8%)로, 절반 이상의 부산 지역 중학생들이 강제 보충, 야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236	3.2%
	‘조금 있다’	401	5.4%
	‘보통이다.’	882	11.9%
	‘조금 심하다’	1,393	18.8%
	‘매우 심하다’	4,487	60.7%
합계		7,399	100.0%

휴대폰 사용 제한에서 ‘전혀 없다’를 제외한 응답수가 7,136(96.8%)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 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하다’는 60.7%로 나타나 두발규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소지품 검사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1,845	24.9%
	‘조금 있다’	1,782	24.1%
	‘보통이다.’	1,761	23.8%
	‘조금 심하다’	952	12.9%
	‘매우 심하다’	1,059	14.3%
합계		7,399	100.0%

소지품 검사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1,845명(24.9%)뿐이었고, 나머지 75%가 넘는 학생들이 소지품검사를 경험하고 있었다. 소지품검사는 대부분 휴대폰소지규제와 맞물려 이루어지므로, 학교내에서의 인권침해는 총체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학생 회장 출마 제한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2,313	31.3%
	‘조금 있다’	1,391	18.8%
	‘보통이다.’	1,709	23.1%
	‘조금 심하다’	920	12.4%
	‘매우 심하다’	1,066	14.4%
합계		7,399	100.0%

2,313명(31.3%)을 제외한 학생들은 학생 회장 출마 제한(내신 성적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비교적 많아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 회장 출마 제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복장 규제(외투, 신발, 양말 색 등)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833	11.3%
	‘조금 있다’	917	12.4%
	‘보통이다.’	1,141	15.4%
	‘조금 심하다’	1,611	21.8%
	‘매우 심하다’	2,897	39.2%
합계		7,399	100.0%

‘전혀 없다’를 제외한 응답수가 6,566(88,7%)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투, 신발, 양말 색 등 복장에 대해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심하다’ ‘매우 심하다’ 라고 대답한 학생이 절반이 넘어 두발규제, 휴대폰 사용 제한만큼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술 방식의 설문 조사

본 설문조사는 '특히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제한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경험을 적어주세요' '그 이외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란을 만들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곳에 나온 사례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겨울에 외투입는걸 규제하고 뺏어요. 중앙현관으로 등교하는걸 선도부가 제지해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고 뒷문으로 등교를 못해서 돌아서 정문으로 등교하는 애들이 생겨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면 선도부를 하지 못해요"

"담임선생님의 성적차별이 심하다"

"보충학습을 하는데 명목상 보충학습신청서를 내어주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충학습을 하는것에 동의하게합니다"

"선도부 아닌 언니들이 선도부인척하고 애들 화장품 가져간다는 얘길 들었어요 ㅠㅠ 그리고 저희 반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을 성적으로 매기는 것 같아요. 반장선거할때도 "이왕이면 공부를 좀 하는애들이 나오는게 좋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시에 반에 와서 소지품검사해서 화장품,충전기등 뺏어감"

"여학생을 외모적으로 놀림감을 삼고 말로 괴롭히며 기합을 줌과 동시에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을 찬다. 학생에게 장난식으로 자퇴,전학에 심지어 자살까지 권유하는 말을 한다. 학생으로서 알아야할 학교의 상황이나 교육과정등의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요즘 날씨차가 큰데도 춘추복을 입으라는 말을 안해주셔서 위에 걸치는것 등을 입었더니 압수 하셨다."

"EBS라고해서 하기 싫은데 7교시까지한다" (중학생)

"머리 잡을때 죽고 싶다"

"핸드폰은 꼭 내야하고 가방검사를 해서 치마2개이상 나오면 그중에 짧은 치마는 뺏어서 돌려주지 않거나 단을 다 뜯고 준다. 머리길이도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기 전과 같이 검사를 실시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비하하는 언어를 매우 심각하게 쓰고 차별을 매우 심각하게 한다."

'머리가 길면 이발사 가 와서 그냥 머리를 밀어버린다'